

# 장백산천지

제 223 호

2014 년 1 월 27 일

월요일



부동한 민족 파룬궁 수련생들이 오린 작품(剪影). '쩐싼런(眞善忍)'을 수련하여 신체가 건강해 지고, 도덕이 고상해 지며, 생명을 진귀하게 여긴다.



## 분신자살 사기극 진상을 똑바로 보아야 미래와 희망이 있다

[밍후이왕] 새해가 시작될 때면 사람마다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기도하고 갈망한다. 여러분들의 앞날(前程)을 위하여 모두 '분신자살' 진상을 료해 할 것을 희망한다. 이것은 본 세계에서 중대한 정보(信息)이다. 이 진상을 알아야 만이 당신은 통찰력이 있게 되고, 미래가 있고, 광명이 있으며,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 상관 역사 개요를 보자.

**'쩐싼런(眞善忍)'은 몸과 마음에 수익을 준다**

파룬궁은 불가 상승 수련대법이다. '전법륜(轉法輪)' 이 한권의 책은 사람에게 '쩐싼런(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도덕경지도 제고 되게 하며, 5 조 공법으로 된 느슨하고도 우아한 보조 동작이 있다. 1992 년 5 월부터 공개적으로 전해져서부터 1999 년 7 월까지 7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파룬궁을 련마하는 수련생이 1 억에 달했다. 병 치료와 신체건강, 사회도덕 승화에 현저한 효력이 있기에 파룬궁의 명성은 중국의 집집마다에 알려졌다.

**강택민과 라간이 발동한 박해**

1999 년 7 월, 중공의 우두머리인 강택민과 라간은 질투와 개인 이익을 위해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발동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대륙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문화대혁명"을 경험하였고, 또한 파룬궁의 공법효력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이 한차례 정치적 박해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며 정부에서 발동한 '만명서명' 등

활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했다.

강택민이 하달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 시키며, 신체적으로 소멸시키라', '때려죽여도 추궁하지 않으며, 때려죽이면 자살로 치라'는 것은 가장 잔인한 박해 명령이었다.

**중공이 연출한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

이 한차례 박해 운동을 유지하고 추진하기 위해 2001 년 1 월 23 일, 강택민, 라간 무리들은 천안문광장에서 한차례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을 연출하여 전 중국의 매체를 동원해 파룬궁에 죄를 덮어씌웠다.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을 내놓은 일주일 후 사람들의 의문점이 늘어나자 중공은 중앙 텔레비전방송국을 조종해 '교점방담'(焦點訪談)절목에서 파룬궁을 공격했다. 하지만 '교점방담'의 록상을 느린 화면으로 보면 사람들은 곧 아주 많은 허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례를 들면 :

——이 한차례 사건 중 현장에서 생명을 잃은 류춘링은 사실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흥기에 뒷머리를 가격당한 후 죽었다. 신비한 것은 가격한 자가 군경 모양이란 점이다.

——중앙텔레비전방송에서의 분신자살 화면에는 또 왕진동의 현장에서 특집 기사가 있는데 한 경찰이 그의 신변에서 소방담요를 들고 흔들거리면서 왕진동이 구호를 다 외친 후에야 비로소 기계적으로 서방

담요를 그의 머리에 씌웠다. '왕진동'의 옷은 불에 타 너덜너덜했지만 그의 두 다리사이에 놓인 휘발유를 담은 록색 음료 병은 그대로 있었다.

**파룬궁은 살생과 자살을 금지한다**

파룬궁은 불법(佛法)수련으로서 살생과 자살을 금지한다. 1995 년에 출판된 파룬궁의 주요저작 '전법륜(轉法輪)' 제 7 강의에는 "연공인은 살생을 할수 없다"고 씌여있고 시드니 에서의 설법증에도 "자살은 죄가 있는 것이다."고 씌여있다.

강택민과 라간 집단의 분신자살 자작극이 많은 의문점이 드러났지만 정치상에서 리득을 챙기려는 자들이 이 자작극과 거짓말을 '표준답안'으로 삼아 중국 대륙의 중소학교 교과서, 시험문제, 취직도표에 넣어 파룬궁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했다.



# 연변 주 정법위원회 서기 강방 (康芳) 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죄행 (런재1)

[명후이왕 2013 년 11 월 25 일](명후이왕통신원 연변보도) 현임 연변 주 계획생육국 국장, 주 정법위원회서기 강방(녀, 50 여세)은 본래 화룡시 팔가자 림업국 선전부장과 국 공회주석을 하다가, 후에 조동대 화룡시 상무위원, 선전부부장, 당위부서기 등을 했다. 강방이 주 정법위서기로 임직한 이래 연변 주 '610'(법위에서 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악한 불법조직)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줄곧 멈추지 않았다.

명후이왕의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2012 년부터 지금까지 연변 주 100 명 이상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불법적인 집 수색, 납치, 세뇌 등 잔혹한 고문박해를 당했는데. 그중 적어도 14 명 수련생이 불법판결을 받았다. 훈춘림업국의 공정사 황자전(黃佳珍)은 4 년 불법 판결을 선고 받고, 연길시 리창화(李昌華), 리창리 (李昌麗), 주엔원(祝延文), 장씨(張姓) 등 파룬궁수련생들은 3 년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연길시 랑엔메이(郎艷梅)는 불법으로 로동교양까지 당한 후에도 또 5 년 불법 판결을 받고, 연길시 둥구이즈(董桂芝)도 5 년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팔가자 림업국 쑨칭취(孫庆菊)는 세뇌반에서 잔혹한 박해를 당한 후에도 3 년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이도백하 리러유(李乐友)도 3 년 불법 판결을 받고, 연길시 루이커룽(芮克榮), 류춘리(劉春立), 박태호(朴泰浩) 등 수련생은 3 년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박문철(朴文哲)의 형기는 알지 못하고 있다.

1. 각 시,현의 '610'을 사주해 세뇌반(洗腦班)을 꾸려 미친 듯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다.

강방의 임기기간, 주 정법위원회에서는 각 시, 현의 '610' 불법 조직을 사주해 수많은 국가자원과 백성들의 피땀이 배인 돈으로 여러 차례 세뇌반을 꾸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연변주에서 꾸린 세뇌반 지점은 돈화 림업국호텔(敦化林业局宾馆), 도문 송림양로원(圖們松林养老院), 훈춘 수죽려사(琿春秀竹旅社), 연길대성(延吉大成), 연길시구조점(延吉市救助站), 룡정시, 화룡시아동저수지(和龍市亞東水库), 안도현 국가세무국초대

소(安圖縣國稅招待所) 등이다.

세뇌반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수단은 극히 사악하다.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해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데 '전향'한 자를 조종하여 사부님을 비방하고, 대법을 왜곡하며, 수련생들을 이간시키고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외에도 하루 종일 수련생에게 대법에 먹칠하는 비디오, 다른 법문의 주문, 사오한 자가 만든 노래 등을 주입시킨다. 악당인원은 또 전향(转化)하지 않으면 판결한다는 등 방식으로 위협하고 공갈협박하며 심지어 파룬궁수련생을 전향시키려고 직접 혹독한 고문을 가한다.

팔가자 림업국 유치원교사인 파룬궁수련생 쑨칭취(孫庆菊)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뇌반에서 구타당해 면모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손목뼈가 골절되고, 머리부위는 온통 부어 익숙한 사람마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 후 쑨칭취는 3 년 불법 판결을 받았다.

팔가자 파룬궁수련생 로펑(老彭, 약 50 여세 부녀)은 세뇌반에서 사오자 소령(邵玲), 오미화(吳美花) 등한테 묶기 박해를 받은 후, 점심때쯤 2 층에서 뛰어 내려 중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 갔지만 허리 척추 뼈(腰椎骨)가 부서지면서 아래 부위의 허리 척추 뼈에 들어가는 바람에 마비로 되었다.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안영희는 일하는 현장에서 연길시 국보대대와 '610'경찰에 납치되어 연길시 구조점 세뇌반에 감금당했다. 그들은 안영희에게 강제로 비디오와 '강의(听课)'를 듣게 했으며, 사오자 '방교'와

거짓말을 주입했다. 성에서 소령(邵玲)이라는 사오자가 연길에 와 '방교'했다. 그는 '천안문분신자살'위조 사건을 리용해 많은 사람을 기편하고 세뇌했다. 안영희를 세뇌반에 감금한 후 강제로 연속 이틀날까지 벌을 세웠다. 안영희가 지쳐 더는 서있지 못하자 몇 명 악경들이 번갈아가기 몸으로 그를 받쳐 주면서 계속 벌을 세웠다. 후에는 안영희의 손을 쇠고랑으로 창문란간에 달아냈는데 두 손이 다 부어오르자 내려놓고 다시 침대에 묶어 놓았다. 특수경찰 왕모는 강제로 안영희의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위에 놓고 끈으로 묶은 후 또 끈으로 목과 등 뒤에 묶여진 두 손까지 겹친 자세로 묶어(蜷형)놓고, 점심 12 시쯤부터 이틀날 오전 음식물주입(灌食)할 때까지 풀어 주지 않았다. 벌을 서서부터 37 시간의 혹형동안 화장실도 보내지 않아 결국 바지에 볼 수밖에 없었고, 가래도 뱉지 못하게 했다. 세뇌반의 악인은 또 사존님(師尊)의 법상(法像)위에 앉으라고 안영희를 잔혹하게 핍박했다.

##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리정옥 불법판결을 받다

2013 년 12 월 20 일, 연길시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리정옥(李貞玉)에게 4 년 불법판결을 했다. 리정옥 가족에서는 몇 일전에야 소식을 받고 연길시 법원에 찾아 갔는데 일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고, 리정옥이 상소를 제기 했다고 하면서 주법원 법관 거푸상(葛福祥)을 찾아가라고 했고, 거푸상이 책임졌다고 했다. 가족이 주법원에 찾아 갔으나 거푸상을 보지 못하고, 1 월 20 일 오후에 다시 찾아 갔는데 거푸상은 주법원에서 상소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리정옥의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자료를 받은 다음 보자고 했다.

연길시법원 집행 법관(執行法官): 양광밍(楊光明) 0433-2586345, 장다원(張大文), 장스후이(張恩慧) 延邊州法院將受理上訴法官: 거푸상(판공실) 0433-2586045, 0433-2586041



주 정법위원회서기강방 (康芳)